

2026학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결과 보고

회의통보일	2026. 08. 13
재적위원수	10명

1. 일시 : 2026. 8. 24.(월) 16:30

2. 장소 : 마리아관 4층 컨버전스룸

3. 참석자명단

구분	인원	성명	비고
참석자	9	총장(위원장), 김호석, 이웅균, 최주영, 정나영, 박재영, 함현, 최제식, 이주형	간사 김범진
불참자	1	김성휘	

4. 회의안건

가. 보고사항

- 2026학년도 상반기 모금현황

나. 심의안건

- 1) 모금운동 네이밍
- 2) 가톨릭관동대학교 기금 운용 지침 개정(안)

5. 심의 결과

순번	안건	심의결과	비고
1	모금운동 네이밍	☐ 가결 - 1안(현행 명칭 유지)으로 의결하고 현행 기금 운영을 지속하기로 함.	
2	가톨릭관동대학교 기금 운용 지침 개정(안)	☐ 수정 가결 - 제12조 및 제14조의 '기금운용심의위원회'를 '기금 운용심의회'로 수정하고, 제8조 제2항은 교육부 확인 후 개정 필요시 차기 회의에 상정하여 재논의하기로 함.	

6. 회의록

- ☐ 성원보고(간사) :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됨을 보고
- ☐ 개회기도(전 위원) : 개회기도
- ☐ 개회선언(위원장) : 2026학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의의 개회를 선언
- ☐ 2026학년도 상반기 모금현황 보고
 - 간사가 회의자료를 토대로 2026학년도 발전기금 상반기 모금현황을 보고함.
 - 간사가 상반기 모금액은 약 1억 6,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,400만원 감소했으며, 70주년 기금 및 기업·동문·직원 기부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,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모금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함.
 - 위원장이 모금 활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, 교직원 급여공제 확대보다는 외부 기금 유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 -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함.
 - 위원장이 질문이 없음을 확인한 뒤, 안건심의를 지시함.
- ☐ 안건심의
 - (안건 1) 모금운동 네이밍
 - 대외협력본부장이 모금운동 네이밍에 대해 설명함.
 -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함.
 - 한 위원이 기금 명칭이 기부자의 기부 의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,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.
 - 대외협력본부장이 기존 목적성 기금을 정비하고, 발전기금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.
 - 위원장이 일반기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, 목적성 기금은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네이밍과 기금 목적을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 - 다른 위원이 발전기금의 사용상 제약을 고려할 때 현행 명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 - 다른 위원들도 현행 유지에 동의함.
 -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건 1. 모금운동 네이밍은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함.
 - (안건 2) 가톨릭관동대학교 기금 운용 지침 개정(안)
 - 위원이 기금 운용 지침 개정(안)의 제안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함.
 -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함.
 - 한 위원이 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제12조 및 제14조의 관련 명칭도 일관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 - 다른 위원이 법령상 제한·허용되는 금융상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자금 운용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 - 또 다른 위원은 기금 운용 지침 내 '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'과 '원금 손실 위험이 과도한 상품'의 표현이 상이해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용어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 - 위원장이 제12조 및 제14조의 '기금운용심의위원회'를 '기금운용심의회'로 수정하고, 제8조 제2항은 교육부 문의 후 필요시 재논의하며, 제10조 투자 제한은 별도 업무 가이드로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함.
 - 위원장이 안건 2. 가톨릭관동대학교 기금 운용 지침 개정(안)은 '수정 가결'되었음을 선언함.
- ☐ 폐회선언(위원장) : 2026학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의의 폐회를 선언
- ☐ 폐회기도(전 위원) : 폐회기도. 끝.